# 어머니의 손수건

극작 김민수

**1. 등장인물**

순돌이 엄마(신선애)
김순돌
김순녀
김장돌
이순자

**2. 장면구성**

1장 시장
2장 집 안
3장 떠나는 자리.
3.5장 서울 (술집 분위기)
4장 집
4.5장 교회(세월)
5장 편지(몇년 후)
6장 손수건
7장 엔딩

## 1장 교회 마당 (바자회)

교회 마당에서 바자회가 한창이다. 성도들이 각자 부스를 운영하며 음식을 팔고 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낸다. <밝고 경쾌한 BGM>

장돌이 등장하여 여기저기 참견하며 돌아다닌다.

장돌　　어허이~ 역시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지~ 오늘은 천국 장날이 따로 없구만~

관객석 쪽으로 다가가 이것저것 말을 건다.

장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말이여. 웃음소리도 나고, 사람 냄새도 나고 그래야 혀. 자 보자~ 여기는 떡도 있고, 저기는 김치도 있고. (관객에게 다가가며) 집사님, 바자회 쿠폰 좀 보여줘 봐유. 아니 만 원짜리를 내면 어떡혀. 여기선 천 원 쿠폰만 받는당게~ 아따 큰손이시네.

관객들과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선애가 부른다.

선애　　김집사님! 또 일 안 하고 돌아다니세요? 빨리 이리 와요.

장돌　　어? 나 일하고 있었는디?

선애　　무슨 일을 관객석까지 내려가서 해요?

장돌　　영혼 점검.

선애　　허튼소리 말고 와요.

후다닥 선애 곁으로 오는 장돌.

장돌　　순돌이 엄마. 그러니까 말이여, 순돌이는 누구를 닮아서 공부를 그리 잘한당가? 우리 개똥이는 공부는 둘째치고 아직도 한글도 못 읽는디 환장하겄어.

선애　　개똥이는 세 살이잖아요. 세 살이 한글 읽으면 그게 더 무섭죠. 그리고 순돌이는 저를 닮았어요.

순자가 등장한다.

순자　　개똥이가 공부를 하겄어? 에이그 화상아. 애 이름이 태성인데 왜 맨날 개똥이여. 태성이 엄마가 불쌍하지.

장돌　　뭐여! 이놈의 여편네가 또 시작이구만. 근디 솔직히 태성이가 이름은 더 멋지긴 혀. 아무튼 우리 교회에 큰 인물이 났어. 전국 수석이래매?

순자　　그러게 말이여. 인물 좋지, 공부 잘하지, 성격 좋지. 아주 훌륭혀.

선애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럽게.

잠시 뜸을 들인 뒤.

선애　　근데 공부 잘하고 착한 건 맞아요.

다 같이 웃는다.

장돌　　그치그치. 교회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 아 참. 태성이 엄마가 떡 좀 사오라 했는디 그거 좀 줘요. 돈은 여기.

선애　　늘 감사해요.

장돌　　그런 말 하덜 말어. 우리가 뭐 남이여?

장돌이 떠난 뒤 선애는 돈을 확인하고 놀란다.

선애　　장돌 아재! 거스름돈 가져가셔야죠!

장돌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필요 없소. 순돌이 순녀 맛있는 거 사줘유~

쿨하게 사라지는 장돌.

순자　　늘 장난만 치는 것 같아도 속은 참 깊어. 우리 요한이 아플 때도 큰 병원 보내라고 걱정해주고, 조용히 봉투도 줬어.

선애　　철없어 보여도 정 많은 사람이죠.

순자　　아 맞다. 순돌이 이번에 서울 간다면서?

선애　　맞아요. 기쁘긴 한데 걱정도 되네요. 혼자 보내야 하고, 등록금에 생활비에...

순자　　걱정하지 말어.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순돌이 장학금 이야기 하던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키운 아들 아니여.

선애　　아...

순자　　순돌이 엄마...순돌이 엄마는 걱정 말고 제일 좋은 학교 보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겨.

선애　　고마워요.

순자　　나중에 법대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 되면 우리 영희랑 결혼시키면 되겄네.

선애　　영희 이제 다섯 살이잖아요.

순자　　음...

잠시 정적.

장돌(무대 밖)
다섯 살은 안뎌~~~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밝은 음악이 흐르고 장면이 마무리된다.

암전.

## 2장 집 안

순녀는 옆에서 노래부르고 있고, 순돌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순녀　오빠아~
순돌　왜?
순녀　서울 가면 나 잊어버릴 거야?
순돌　안 잊어.
순녀　맨날 그렇게 말하더라.
순돌　안 잊는다니까.
순녀　진짜?
순돌　응.
순녀　그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사줄건데?
순돌　과자?
순녀　에이~
순돌　두 개.
순녀　와아!

선애 등장

선애　둘이 잘 지내고 있었니?
순녀　엄마! 오빠가 나 과자 두 개 사준대!
선애　서울 가기도 전에 재산 다 탕진하겠네.

다같이 웃는다. 선애는 순돌을 바라본다.

선애　순돌아, 공부 좀 쉬어.
순돌　괜찮아요. 어머니. 열심히 해야죠.

그 순간 순돌의 코에서 피가 난다. 선애 급하게 손수건을 건넨다.

순돌　어머니, 그거는 아버지가 준거라. 애지중지 하던거잖아요. 괜찮아요. 잠깐 나가서 닦고 올게요.

순돌은 밖에 나간다.

순녀　엄마, 오빠 너무 열심히 공부해.
선애　그치? 오빠가 우리 순녀 맛있는거 많이 사줄려고 그러나보다.
순녀　그치그치. 우리 오빠가 최고야.
이때 순돌이 돌아온다.

선애　　아들, 쉬엄쉬엄해.
순돌　　네.
선애　　일로 와바.

순돌이 앉자. **손수건과 성경책, 돈봉투**를 순돌에게 건넨다.

선애　　내일부터 이제 서울에 가서 있어야할텐데, 이거 가지고 가서 이 어미랑 동생 생각해.
순돌　　어머니...
선애　　나는 너희 둘이 있어서 늘 행복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순돌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순돌　　네.

순돌 눈시울이 붉어지자 동생 순녀가 놀린다.

순녀　　엄마엄마 오빠 울어.
순돌　　안울어.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선애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잔잔한 음악)

## 3장 떠나는 자리 (버스터미널 분위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다.

장돌　　야 순돌아.
순돌　　예, 아저씨.
장돌　　서울 가서 절대 깡패 되지 마라.
순돌　　제가 왜요.
장돌　　서울 사람들은 다 깡패라더라.
순자　　그건 아재 생각이고!

(웃음)
동네 사람들　　잘 다녀와라!공부 열심히 해라!

(순돌 눈시울 붉어진다.)
선애는 작은 보따리를 건넨다.
선애　　도시락이야.
순돌　　어머니...
선애　　배고플 때 먹어.
순돌　　네.
선애　　아프지 말고.
순돌　　네.
선애　　힘들면 집으로 와.
순돌　　...

버스 출발 소리.

순돌　　엄마.
선애　　왜.
순돌　　고마워.
선애　　사랑한다. 아들.
순녀　　오빠 맛이는거 사와!
순돌　　알았어.

순돌 무대 밖으로 걸어가고 (버스 탑승 소리)
선애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든다.
암전.

## 3.5장 서울 (술집 분위기)

거리에 순돌이랑 친구들이 있다.

친구1　야 순돌아.
친구2　오늘 한잔 해야지.
순돌　난 공부해야 돼.
친구1　야이씨 너는 맨날 공부만 하냐?
친구2　좀 즐기면서 살아. 얼굴 멀쩡하고 훌륭한데 좀 놀아라. 니가 있어야 미팅자리도 빛이 난단 말이야.

(시간이 멈춘다.) 그리고 친구1, 친구2의 녹음된 목소리가 마구마구 오버랩된다.
조명 암전. 가운데 탑조명이 떨어지고 순돌이 그곳으로 간다. 조명색이 바뀌면서 순돌 독백.

순돌　한번, 두 번, 세 번...계속 되는 술자리.
친구들은 나에게 술과 미팅이 즐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한 번쯤은 괜찮다.", "대학생이 공부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번 한 번만 놀자."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열 번이 되었다.
나는 조금씩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시간이 다시 흘러간다.)
친구들이 한명씩 사라진다. 결국 혼자 남은 순돌. 좌절하고 괴로워하며 암전된다.

## 4장 집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는 선애)

<빗소리 효과>
어두운 조명.
선애는 방 한 켠에서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순녀는 어느새 고등학생 정도로 성장해 있다.

순녀　　엄마.
선애　　응.
순녀　　오빠 연락안 온 지가 몇 년인데...
선애　　그래도 기다려야지.
순녀　　엄마.
선애　　왜.
순녀　　혹시 오빠가...

(말을 멈춘다.)

선애　　아니다.
순녀　　...
선애　　우리 순돌이는 살아있어.
순녀　　어떻게 알아?
선애　　엄마는 알아.
순녀　　...
선애　　아무리 멀리 가도.
엄마는 자식 숨소리를 아는 법이야.

(순녀 눈물)

그때 밖에서 장돌 목소리.
장돌　　순돌이 엄마!!
선애　　어이구 또 왔네.

장돌등장.

장돌　　아따 비가 억수로 와서 논두렁이 다 떠내려가겄슈.
순녀　　장돌 아재.
장돌　　어이 순녀.

많이 컸네.
옛날에는 콧물 질질 흘리고 다녔는디.

순녀 아재!

장돌 맞잖여.

(웃음)
장돌은 잠시 선애를 바라본다.
장돌　　소식 안오는겨?

선애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인다.
장돌　　걱정하덜덜말어. 순돌이자식 잘하고 있을거여.
선애　　잘하고 잘살고가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장돌　　건강하게 잘 있을거여. 어릴 때부터 성실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놈이었응게....
　　아무튼 걱정하지말고 기다려봐.
선애　　네...
장돌　　다 잘될거여~

서서히 장면이 암전.

## 4.5장 새벽기도(교회)

<교회 종소리>
어두운 조명.
작은 십자가 조명 아래 선애가 홀로 앉아 있다.

선애　　하나님...우리 아들 어디에 있든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잠시 침묵

선애　　성공 안 해도 돼요. 큰 사람 안 돼도 돼요.

눈물을 닦는다.

선애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LED화면에 카세트영상이 나온다. 선애가 등장해 탑조명 아래 조용히 서있다.

*순돌 목소리 나레이션이 시작되고 LED화면이 봄화면으로 전환된다.*

순돌(녹음)　　어머니. 서울 생활 잘 하고 있어요.걱정하지 마세요.

(카세트 소리 끊김)

*LED화면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뀐다.*

순돌(녹음)　　어머니. 고시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죄송해요.

(카세트 끊김)

*LED화면이 여름에서 가을으로 바뀐다.*

순돌(녹음)　　어머니. 곧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카세트 끊김)

순돌(녹음)　　...어머니. 죄송합니다.

*LED화면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뀐다.*

(카세트 정지)

선애는 카세트를 가슴에 안는다.

선애 어디 있니. 우리 아들. 어디 있니...
조명 암전.

## 5장 편지 몇 년 후.

선애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순자　　오늘은 좀 쉬어.
선애　　괜찮아요.
순자　　무슨 괜찮아.쓰러지겠구만.
선애　　정말 괜찮아요.

그때. 멀리서 우체부가 달려온다.

우체부　신선애 씨! 신선애 씨 계세요?
선애　　예?
우체부　편지 왔습니다.
선애　　편지요?
우체부　예.

선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는다.

장돌　　누구 편지여?
순자　　설마...
선애는 천천히 봉투를 연다. 무대 중앙 조명.

순돌(나레이션)　어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 있을 겁니다.
어머니. 저는 나쁜 길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기대했던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를 지었습니다. 보내주신 돈 도박과 술로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갈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 긴시간...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그 기대감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가 집에 돌아가도 될까요? 집에 돌아가도 된다면 집 앞 감나무에 이 손수건을 달아주세요. 달아주시면 집에 돌아갈게요.
아들 순돌 올림. 편지가 끝난다.

정적.

순녀는 편지 봉투 안에 있는 손수건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다.

순녀　　오빠가 살아 있었어. 엄마
선애는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선애　　살아 있었구나...살아 있었어...

암전.

## 6장 마을에 돌아온 순돌

탑조명만 주어지고 순돌이 무대 가운데 들어가자. 조명이 이내 환해지면서 관객과 LED에 손수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무대에 무릎 꿇고 쓰러지는 순돌. 등장인물들이 손수건을 들고 등장한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순돌을 둘러싼다. 그리고 어머니가 등장해 순돌을 조용히 안아준다.

순돌　어머니...
선애　응.
순돌　죄송해요...
선애　...
순돌　정말 죄송해요.
선애　...
순돌　저는...어머니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선애는 순돌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선애　누가 그래. 누가 우리 아들 아니라 그래. 이 어미는 하루도 단 하루도 너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순돌은 결국 오열한다.

선애 이제 집에 가자.

순돌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린다. 장돌이 눈물을 훔치며 한마디 한다.

장돌　아따...눈에 먼지가 들어갔는갑네.
순자　먼지는 무슨. 울긴 왜 울어.
장돌　안 울었어!!
순자　콧물 나오잖여!
장돌　이건 그 뭐여, 땀이여!

순녀가 앞으로 걸어 나온다.

순녀　오빠.
순돌　...
순녀　바보.
순돌　미안하다.
순녀　엄마는 매일 기다렸어.
순돌　...
순녀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오빠 이야기만 했어.
순돌　...
순녀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지마.

순돌　　안 갈게.
순녀　　진짜?
순돌　　응.
순녀　　약속?
순돌　　약속.

순녀는 울면서 순돌을 안는다.

장돌　　거 봐라. 집은 원래 돌아오는 곳이여.

그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훔친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LED가 바뀌고 검은색 화면에 하얀 글씨만 나온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5초]**

음악이 나오고 커튼콜